

그래서, 왜 < 강령 > 인가

아나키스트운동의실천적방법론에관하여

C.Necromancy of 아나키스트연대

C.Necromancy of 아나키스트연대
그래서, 왜 < 강령 > 인가
아나키스트운동의실천적방법론에관하여
2020

아나키스트연대가출판준비중인 < 아나키스트총동맹의조직적강령 > 한국어
판의역자후기

아나키스트연대가출판을준비중에있는 < 아나키스트총동맹의조직적강령 >
역자후기. 아나키스트연대의회원이직접작성함.

『아나키스트총동맹의조직적강령』은우크라이나의혁명반군운동이패배한 후, 프랑스로망명중이던네스토르마흐노를포함한러시아아나키스트그룹이작성한것이다. 이문건은 1924 년당시에도충분한논란이되었다. 마흐노는우크라이나에서함께투쟁하였던브세보폴트미하일로비치아이헨바움 (활동명볼린) 과의격렬한논쟁을거쳐야했다. 이탈리아의아나키즘적코뮌주의자에리코말라테스타역시 『강령』 에반대했다. 애초에‘아나키스트조직’이라는말만들어도질겁하는개인주의적아나키스트·반란적아나키스트들에대해서는, 그저말을말자.

『강령』 은결코완전한문건이아니다. “아나키스트총동맹”의상은위험하다. 궁극적으로본인의아나키즘에입각하지않은‘아나키스트’들을‘아나키스트가아니’라고말하는것이나마찬가지이기때문이다. 내가그들에게동의하건말건, 반란적아나키스트들도, 개인주의적아나키스트들도‘아나키스트’다. 함께투쟁할 수는없겠지만말이다. “혁명의방어”는분명한군대의재건이다. 혁명은, 그혁명에동의하는인민대중의자체적역량으로만방어할수있다. 그역량을뛰어넘는“방어”를지도력과지휘력과신묘한전술로이루어낼수는없다. 지휘통제체계를통합하는것이인민대중의역량을뛰어넘게할수있다면, 우리가노동자국가와프롤레타리아독재를받아들이지못할이유는또무엇이겠는가.

그럼에도, 『강령』 이그토록논란을불러일으켰으며당대에는그다지큰조류를만들어내지못하였음에도불구하고, 『강령』 을기반으로한흐름은오늘에도분명하게남아있다. 아니, 어쩌면, 아나키즘의각분파들중에서, 결국가장활동적이고강성한세력으로남아있다고보아도무방할것이다. 이것은왜인가. 대체 『강령』 이무엇이기에, 출판이된지 100 년이가까운시간이흘렀음에도, 여전히그이야기가유의미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

『강령』 이주장하는바는다음과같다.

하나. **아나키즘운동을통일된강령에근거한하나의조직으로묶어내어야한다**는것. 이는 1917 년이후러시아의아나키스트운동이분산되고각자의방법론으로각자투쟁하다가결국한순간에청산되어버린경험에근거한다. 어제는 《전국아나키스트총연맹》 에서공장위원회를통한노동자자주경영을이야기하였는데, 오늘은 《전국아나키스트연방》 에서모든생산시설에대한폭탄테러를이야기하고있으면, 아나키즘이과연대중을설득할수있냐는이야기다. 디엘로트루다는그강령의내용이계급투쟁을기반으로한아나키즘이어야하고, 대중의무장투쟁을기반으로해야하며, 생산의노동자자주통제에기반으로해야한다고제시하지만, 필자본인의동의여부와는무관하게그것은강령의요체가아니다. 시대와조건에따라그내용은달라질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강령』 의요체는, 사회혁명의방법론을계급투쟁에두건, 개인적각성에두건, 인민의자발적무장봉기에두건, 그것에합의하는아나키스트들이하나의조직에모여하나의전술에따라하나로활동해야한다는것에있다.

하나. **그조직에소속된아나키스트활동가들이대중조직에침투하여대중조직을강령의방향으로추동하여야한다**는것. 아나키즘의요체가대중의직접적이고

콘텐츠도, 연방도 그무엇도 갖추지 못했다. ‘노동대중의의지로작동하는혁명적생디칼’을사회혁명의이상으로말한다면, 그생디칼이언제다아울지모르는사회혁명의그날까지혁명적일수있는추동력이어디서나오는지설명해달라. 1907년마냥노동조합의건설자체가탄압의대상이라면, 노동조합의건설자체가의미있는과업이겠지만, 2021년조선반도는타협적조합주의를하기에는너무나도훌륭한토양을갖추고있다. 그생디칼들의총파업이사회혁명의날을열것이라고이야기한다면, 전술적단결이없이어떻게총파업을만들어낼것인지알려달라.

결국, 2021년조선반도를살아가는우리에게필요한것은, 동일한강령에동의하는아나키스트대중·활동가들의조직을통한대중운동에의전술적개입이다. 그리고다시한번, “아나키즘은아름다운유토피아도, 추상적철학의이데아도아니다. 아나키즘은노동대중의사회운동”이다. 아나키스트가바라보아야하는것은, 지구반대편의, 혹은 100년전의사회운동지형이아니라, 2021년오늘조선반도의운동지형이다. 그렇기에나는다시한번, 『강령』을말한다.

언젠가, 정말로언젠가, 『강령』을이야기하는내가, 대중의사회운동에서‘권력’이되고, 대중을지도하려할지도모른다. 불린이, 말라테스타가, 밥블랙이『강령』에대하여제기했던문제가실제로나타날지도모른다. 하지만나는그런일이발생할때나를타도해줄아나키스트동지들의투쟁을믿는다. 그렇게『강령』마저타도될때, 혹은『강령』이 스스로해소할때, 그토록바라마지않는노동대중의해방에한발더다가갈수있으리라믿는다.

자주적인결정에있음은분명하다. 『강령』도이를부정하지않는다. 아니, 오히려“노동해방은오로지광대한노동대중의직접적혁명투쟁과자본주의체계에대항하는계급조직을통해서만가능하다”고말한다. 하지만현재의노동대중이, 지난수천년의인류역사를거치며‘지도되는것에의속하여져버린’2021년의노동대중이, 지금그억압의속박을풀어낸다고해서, 자주적결정을의속하게할수있는가? 당장대표적인노동대중의자발적조직인노동조합을보자. 오늘의임금투쟁을더이어갈것인지, 아니면현재까지받아낸양보에우선만족하고다음의투쟁을위해조직을가다듬을것인지에대한판단이, 조합원들에게“마음껏해보세요”라고말한다고이루어지던가? 그렇지않다. 오히려그렇게내버려두었을경우, 지금까지의관성에따라, 대표자를세우고, 그대표자에게의사결정권을위임하고, 그판단에소극적으로복무함에그치게되는경우가많다. 대중이이것을선택하였다고하여이것을그저수인하는것이아나키스트의방향성인가? 『강령』이부정하는것은이것이다. 『강령』은아나키스트활동가들이, 대중을조력하여, 대중의자주적결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 대중이또다른억압을‘자주적으로’구성하지않을수있도록추동해야함을이야기하는것이다.

그렇기에결국『강령』이이야기하는아나키즘은, “아름다운유토피아도, 추상적철학의이데아도아니다. 아나키즘은노동대중의사회운동”이다. 대중운동의현상을직시하고, 그현상을바탕으로아나키스트의대중운동의상을고민하자는것이다. 아나키스트들이바라는, 관념의세계에만존재하는, 이상적대중에대하여이야기하는것이아니라, 현재의이저주받을체제속에서교육받고, 구성되어온실체로서의대중을바라보아야한다는것이다.

그리고그대중이, 현재의조건에서, 자신이변혁의주체가될수있다는사실을인지하지못하고있음은분명한사실로존재한다. 나아가, 스스로가조직할수있음을, 자기노동의조건과삶의조건을결정할여지가있다는것을인지하지못하고있음또한, 물리적사실로존재한다. 기껏조직을만들어놓은후, 법의규정을, 자본의상생운운을, 국가의폭압을넘어선요구를만들어내지못하고‘합법적’조직의테두리로쫓그라드는경우가많다는것도한자명한사실이다. 요구를만들어내는데까지성공했다하더라도, 그요구를쟁취하기위한투쟁의방법론을찾아내지못하고, 마찬가지로‘합법투쟁’에매몰되어보수화되고형해화形骸化되는경우역시무수하게많다.

아울러이러한대중을객관적조건으로바라볼때, 아나키스트들은그조건에순응하고대중의결정이라는흐름에복무해야하는가. 아니면그조건속에서, 우리의이상을, 우리의최대요구를발화하며대중을우리의방향으로끌어오기위한이정표가되어야하는가.

그리고『강령』은, 여기에서후자를선택하였기에, 오히려『강령』을‘전위당을옹호하고*대중을지도하려하는*유사불세비키’라부르는자들의이데올로기보다한층더대중지향적운동이된다.

볼린은아나키즘의‘통합’을주장했다. 아나키스트들이하나의토론장에서서로의주장을천천히점점해가며, 서로가동의할수있는지점들을모색하여가자는주장이었다. 하지만, 그공통점은포괄하는대상이커지면커질수록작아질수밖에없다. 결국작아지고작아져, ‘국가와자본에반대한다’는단순한테제만이남게되는순간, ‘통합’의운동성은삭제된다. 설혹아나키스트들이민족해방운동에적극적으로복무하여야한다는주장이라도, 아나키스트들이정치에적극적으로복무하여제도와체제를보다자유의지주의적으로만들어내야한다는주장이라도, 그것이국가와자본에반대하는한‘통합’해야하기때문이다. 그리고이러한(혹은이것보다는수위가낮을지라도) 주장들을‘통합’해나간결과, 아나키즘은대중운동에밀착하지못한지식인(혹은유사지식인)들의지적유희에불과하게되었다. 만약특정한주장들을‘통합’하는것을포기하고, 그것을‘유사아나키즘’이라취급하기로결정한다면, 그것이어째서‘통합’인가. 광의의『강령』인것이지.

말라테스타는아나키즘운동의조직이, 조직적책임이아니라개인적책임의원칙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비판한다. 이것이정확하게무엇을비판하는것인지알수가없다. 모든조직의구성원은, 개인적책임의원칙에따라, 조직의결정에대한책임을분담한다. 조직의결정에동의하지않는모든개인에게는, 그결정과정에개입하고, 결정을바꿔내기위해노력하고, 그래도바꾸어내지못하였다면조직을분열해낼자유가있다. 그렇다면이러한행동을취하지않고, ‘그럼에도조직적단결이필요하므로조직에복무’하기로결정했다면, 그개인적행동에대한책임은저야하는것이아닌가? 그책임이, ‘조직적책임’인것아닌가? 그리고더나아가, 대중에게방향을제시하는것이아나키스트활동가의책임이라는것은긍정하면서‘조직적원칙’이아닌‘개인의선’의에의존하여버리는것은, 너무도낮이익은이데올로기에대한긍정이다. 결국어리석은대중을지도하시는하나의선하신분이되는것이아닌가. 말라테스타가『강령』에대해마흐노와는쟁할때에는“아나키스트조직의행정부는그조직을수인하지않는이들에대한행정권력도, 지도력도가져서는안된다”고말하던그말라테스타가, 단 1 년이지난후“하지만그들(대중들)의지성과주도권에너무크게의존해서안된다”면서, “우리의말과행동을통해지시하는것처럼보이는것을회피”하면서“군중이바로스스로를돌볼수없다면, 자주적이고결정을할수있는선량한사람들이그들을위해무언가를해야”한다고말한것은결코놀라운일이아닌듯하다.

모든층위에서의자유를추구하며‘조직적단결’의필요성마저부정했던개인주의적아나키스트들에대해서는, 음, 그래서착취당할자유랑착취할자유마저긍정해서서아나코-캐피탈리스트가되셨나요? 라고묻고, 더말을하지말도록하자.

“하지만볼셰비키가러시아인민대중의마음을얻었다고해서, 아나키스트들이볼셰비키가되면안되는것이아닌가요!”라고말할지도모르겠다. 참으로옳다. 그래서, 강령주의는아나키즘적볼셰비즘인것인가. 볼셰비즘의요체는전위당의집권과그를통한대중의지도다. 프롤레타리아트의계급적의지를대변하는노동

자계급정당이대중을지도하고, 대중이그지도에따름으로서계급적의지를실현한다는것이다.

하지만《아나키스트총동맹》은대중의의지를참칭하지않는다. 총동맹은그구성원, 또는구성조직의의지를대변한다. 그의지로대중을설득하고추동해낸다. 대중속에서, 대중으로서, 아나키스트적의지를가진대중으로서대중을자신의방향으로끌어들이고, 대중이아나키스트적의지에부합하는결정을하도록조직적으로행동한다.

그리고여기에서‘아나키스트적의지’는대중을‘지도’하는것을원하지않는다(최소한『강령』은그렇게말하고있다). ‘아나키스트적의지’는대중이 스스로조직하고, 스스로결정하고, 스스로를옥죄는위계질서를타격하여자기삶에대한주도권을확보해내는것이사회주의이자혁명이라고바라본다. 그렇기에아나키스트총동맹의목적은, 대중을조직하고, 대중의결정을행정적으로돕고, 모든위계질서에의타격에대한전술적조력을제공하고, 대중의주도권을편취하고자하는다른이데올로기 — 정당들에맞서는것에있다.

『강령』의방법론이볼셰비키의그것을일부차용한것이라고하면그것이옳을수도있다. 하나의이데올로기로단결한하나의조직이, 통일된전술적방법론으로대중을추동해내는것말이다. 하지만이것은어찌보면, 대중을조직하기위하여필요한방법론인것이아닌가. 어쨌든, 그들이결과적으로실패할수밖에없는체제를재건하여버렸다고해도, 그렇게하여그들이대중을배신하였다고하여도, 볼셰비키는 1917 년 10 월, 대중을조직하여혁명에성공했다. 그볼린마저도, 당시볼셰비즘의대두가당연한것이라고하고있지않은가 (“모든온건한정부와정당의실패후에도노동대중이남아있는마지막정당으로눈을돌린것은당연한논리적귀결이었다. 두려움없이사회혁명을바라본유일한정당. 권력이주어졌을때기존의모든문제를신속하고행복하게해결할것을약속한유일한정당. 볼셰비키가바로그정당이였다.”).

어떠한이데올로기를다른이데올로기와등치하는것은그방법론적일치에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 목적과요체의층위에서이루어져야한다. 대중을조직해내는것은모든형태의사회변혁운동을집행함에있어반드시필요한과업일뿐, 그자체가목적적인것은아니다. 『강령』의목적이대중의의사를대변하여대중을지도하는정부를건설하는것이라면, 강령은아나키즘적볼셰비즘인것이맞다. 하지만그렇지않다.

마지막으로이야기해야할지점은, 2021 년조선반도에서아나키즘에임각한사회변혁적대중운동을이야기하는우리에게가능한대중운동의전술적방법론이무엇인가에관한지점이다. ‘통합’의방법론은, 그유효성의여부를떠나, 최소둘이상의아나키스트이론이존재해야가능하다. 2021 년조선반도에서는불가능한선택지다. 개인의자유의회에의한코원을이야기하고싶으면, 국가와자본의통제에서벗어난코원의상을단하나라도보여주고이야기하면좋겠다. 2021 년조선반도의아나키즘운동은, 그러한코원을건설할수있을정도의인자도, 물질기반도,